

한국과 일본의 선승(禪僧)의 시적 교류

—한국 선승들의 선시를 중심으로—

최동호

1. 들어가는 말

한국과 일본의 교류는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역사 전개에서 가장 밀접하고도 결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였다. 앞으로도 이런 관계는 서로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지속될 것이다. 대체로 4세기부터 빈번하게 교류된 것으로 여겨지는 양국의 관계는 7세기 후반부터 문헌상에 나타나기 시작한다¹⁾. 의문에 쌓인 그 이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1500여 년 동안 서로의 역사에서 배제할 수 없는 절대적 관계를 가져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의 교류사가 뿌리 깊은 것이고 결정적인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과 일본의 교류에 있어서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선승들이 남긴 몇 편의 선시들을 통해 그들의 인간적·문화적 교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일단 김달진 편역 『한국선시』(열화당, 1985)와 『한국현대선시』(열화당, 1987)²⁾에 수록된 것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니 만큼 이 이상의 논의는 필자가 감당할 수 있는 현재

-
- 1) 고대 한일 교류에 대해서는 연민수 『고대한일교류사』(혜안, 2003)를, 불교의 교류에 대해서는 최재석 『고대한일 불교관계사』(일지사, 1998)를 참조할 것.
 - 2) 김달진의 『한국선시』는 7세기 원광법사부터 19세기 초의 의순에 이르기까지 38선승의 800여 편의 선시를, 『한국현대선시』는 19세기 말 경호 성우부터 20세기 후반 경봉 원광에 이르기까지 9선승 400여 편의 선시를 수록한 이 방면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이 글에서 인용한 시의 역문과 원문은 모두 이 책에 의거한 것이다. 단, 본 논문의 외래어표기는 자국어 음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 여건을 넘어서는 일이라 하겠다. 물론 이 분야만 하더라도 그동안의 역사적 과정으로 보아 교류의 폭이 매우 넓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것은 한국과 일본 양쪽에 대한 좀 더 치밀한 자료 축적이 요구되는 일이므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겠다.

따라서 이 글은 이 두 권의 책에서 찾을 수 있는 태고 보우(太古普愚, 1301~1382), 천봉 만우(千峰卍雨, 1357~?), 정관 일선(靜觀一禪, 1533~1602), 사명 유정(四溟惟政, 1344~1610), 묵암 최눌(默庵最訥, 1722~1795), 한용운(韓龍雲, 1879~1944) 등 여섯 선승들의 9편의 시에 나타나는 한국과 일본 선승들과의 인간적 교류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14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600여년의 기간 동안이니 아마도 이 기간 동안 불교의 사상적 교류나 승려들의 인간적 교류는 훨씬 더 넓고 깊었으리라 짐작되는 바이지만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선승들의 시적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그 나름으로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검토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선승들은 당시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그들의 시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읽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2. 선시를 통해 본 실례

태고 보우(太古普愚)는 고려 말기 스님이며, 13살 되던 1314년에 중이 되고, 1337년 참선 중에 크게 깨달은 바 있으며, 1346년 중국에 가서 후저우(湖州) 샤우산(霞霧山) 스우청궁(石屋淸珙)의 법을 잇고 중국 임제종의 초조(初祖)가 되었다. 「강남으로 여행하는 일본의 유선인을 보내며」(送日本雄禪禪人遊江南)는 아마도 태고 보우가 중국에 체재하고 있을 때 만나게 된 일본의 선승과 헤어지면서 그 감회를 쓴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에는 술바람이 시원하고
신라에는 달빛이 많다
만일 남방의 삼복철을 만나거든

사람들 위해 ‘무릉사’를 부르시오

－ 「강남으로 여행하는 일본의 웅선인을 보내며」

日本松風爽

新羅月色多

若遇南方三伏節

爲人和唱武陵詞

－ 「送日本雄禪人遊江南」

무더운 남방으로 가는 유선인과의 작별을 아쉬워하고 있는 이 시는 그 문면으로 보아 두 사람이 매우 깊은 인간적 교류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떠올리며 남방의 무더위를 이겨내라고 태고보우가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솔직한 당부는 두 사람은 물론 일본과 한국의 관계 또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매우 우호적인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남방이란 지리상 남쪽에 있는 일본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고국에 돌아가서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를 이겨내라는 격려의 뜻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구에서 “무릉사(武陵詞)”를 부르라고 권하는 것은 더위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인간 가는 곳 그 어느 곳이라도 그 모두가 무릉도원이란 뜻을 담고 있어 수도승들의 깨달음의 세계를 아울러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태고보우가 일본의 유선인과의 헤어짐에 대한 커다란 아쉬움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천봉 만우(千峰 卍雨)는 내외 경전을 연구하고 유가에도 조예가 깊은 고려 스님으로 그는 90이 넘은 후에도 용모가 밝고 기질이 강건하였으나 그의 졸년은 확실하지 않다. 그의 시 『일본 중 분케를 보내면서』(送日本僧文溪)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일본 중 분케를 “무위인(無位人)”이라 하여 천봉이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양자는 서로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상국사 오랜 옛 절

거기에 사는 무위의 진인

불같은 번뇌 스스로 삭고
 고목처럼 섰거니 누구 친하랴
 풍악에서는 나막신에 구름 일고
 분성에서는 달이 문에 맑았었다
 바람 받은 돛배에 바다 넓은데
 고향 봄에는 매화 버들 한창이리
 - 『일본 중 문계를 보내면서』

相國古精舍
 洒然無位人
 火馳應自息
 柴立更誰親
 楓岳雲生屐
 盆城月滿關
 風帆海天濶
 梅柳故鄉春
 - 『送日本僧文溪』

일본 교토(京都)에 있는 “쇼코쿠지(相國寺)”가 첫 구에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 3~4구에서도 “불같은 번뇌 스스로 삭고/ 고목처럼 섰거니 누구 친하랴”하여 분케의 도덕을 아낌없이 높이고 있다. 이어 제 5~6구에서는 풍악(楓岳)과 분성(盆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함께 금강산과 김해 지역을 여행하지 않았나 짐작되는데, 제 7~8구는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분케의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이 시의 전반 4구는 분케에 대한 서술이며 후반 4구는 한국에서 함께 교류했던 추억과 이별을 담고 있다. 아마도 한국의 선승이 일본 승려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예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그만큼 이들의 인간적 교류가 깊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관 일선(靜觀 一禪, 1533~1608)은 서산의 심법을 전해 받은 조선의 선승이다. 『일본으로 가는 정대장을 보내며』(送政大將往日本)는 임진란 때 일본 강화사로 가는 사명 유정을 떠나보내며 쓴 시이다. 전후의 연대로 보아 대략 그의

나이 60세 때 쓴 시로 짐작되는데, 갈 길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부디 무사히 돌아와 재회의 기쁨을 나누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홀로 깊은 산중에서 노병만이 따르는데
 멀리 벗을 생각하면 만날 기약 아득하다
 밤 골짜기의 원숭이 울음소리에 시름이 일고
 구름 산 해 저물 때 애를 끊는다
 먼 길에 잤은 꿈은 돌아오기 쉬우나
 넓은 바다 외로운 배는 아마 가기 더디리
 간절한 이 생각을 은근히 알리노니
 부디 빨리 돌아와 한껏 반겨 보세나
 - 「일본으로 가는 정대장을 보내며」

獨在幽岩老病隨
 古人遙憶杳難期
 愁生夜壑猿啼處
 斷腸雲山日暮時
 繁夢路脩歸極易
 孤帆海濶去應遲
 慙慙爲報相思意
 須早回來望解頤
 - 「送政大將往日本」

시의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일본에 강화사로 파견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임무가 될 것임을 예상하고 그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라는 당부의 뜻이 이 시가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천봉의 선시 「일본 중 분케를 보내면서」와 대조되는 일면을 담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시는 16세기 후반 임진란을 겪으면서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각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예가 될 것이다. 일본인이 친구로서 우의를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침략자로서 일본과 일본인이 그려지게 된 것이다.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보면 이는 매우 커다란 역사적 전환의 계기가 된 것이라고 하겠다.

임진란 당시 승병을 지휘했던 사명 유정(1344~1610)에 이르면 적에 대한 보다 전투적이고 직설적인 내용이 시에 표현되고 있다.

시월에 의승병이 상남을 건너갈 때
깃발과 피리소리 강성을 뒤흔든다
칼집 안의 보검이 한밤중에 우나니
저 요사를 빨리 베어 임금님 은혜 갚으리라
- 『임진년 시월에 의승병을 거느리고 상원을 건너면서』

十月湘南渡義兵
角聲旗影動江城
匣中寶劍中宵吼
願斬妖邪報聖明
- 『壬辰十月領義僧渡祥原』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령에 의해 1592년 4월에 시작된 임진왜란은 그 후 1597년 정유재란과 더불어 일본군의 2차 출병으로 인해조선의 전 국토를 전란으로 휩쓸 후 1598년 8월 도요토미의 죽음과 더불어 막을 내린 일본의 침략전쟁이다. 임진년 10월이면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과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 그리고 서산과 사명이 이끄는 승군의 저항으로 일본군의 공세가 한 풀 꺾이기 시작한 때이다. 서산에 이어 승군을 통솔하게 된 사명은 명(明)의 리루송(李如松) 과 협력하여 평양성을 회복하고 권율을 따라 영남 의령에 주둔하면서 많은 전공을 세운 호국승의 대표자이다. 위의 시는 왜군과 전투를 벌일 때 쓰여진 것으로 남성적인 기개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호방하게 드러난 시이다.

사명은 왕명으로 1604년 강화사가 되어 국서를 받들고 일본에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를 만나 “두 나라 백성들이 오랫동안 전란에 시달려 왔으니 내가 그 고난을 구제하러 왔다”하여 화친을 맺고 3500여 동료들과 함께 돌아왔으니 그 구국의 충정과 공로를 비할 곳이 없었다. 해전의 영웅이 이순신이라면 승군의 대표자로서 전란을 마무리한 것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인용할 찬시는 사명이 강화사로 일본에 체재할 때 쓰인 것으로 일본

에 대한 비판과 만고창생을 위한 사명의 기개가 다음 두 편의 시에 담겨 있다고 하겠다.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는
 개물의 큰 성인이신데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이면
 그것은 어떤 성품이라 할 것인가
 손에 가진 깨끗하고 청정한 그 풀은
 만고에 창생을 위하는 것이네
 - 「일본에 있을 때 어떤 왜인이/ 신농씨가 온갖 풀을 맛보는 그림을 가지고 와
 서/ 찬을 청하기에 써 주다」

人身牛首
 開物之大聖
 人面獸心
 乃謂之何性
 喇喇青青手中草
 萬古爲蒼生
 - 「在日本有倭持/ 神農嘗百草畫像/ 求讚書之」

이 시는 선농(神農)씨가 온갖 풀을 맛보는 그림을 보고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人面獸心)”이라 하여 일본의 침략적 속성을 비판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선농씨는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하고 있었을 터인데 이를 뒤집어 본 것이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이중성을 신랄하게 지적한 것이다. 선농씨가 왜인이 보여주는 그림에서 사람의 몸에 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온갖 풀들을 맛보고 창생들을 구하기 위해 약초를 선별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는 정반대로 얼굴은 사람인데 그 마음은 짐승이라면 얼마나 많은 해악이 될 것인가. 선농씨처럼 창생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이 시의 본뜻일 것이다. 다시 말해 “만고창생을 위하는 것(萬古爲蒼生)”이라 한 것은 침략적 속성을 버리고 만고창생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마도 만고창생을 위해서 강화사로 일본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 유정이 진실로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시에서 묘사한 뱀을 베어버리겠다는 강렬한 의지 또한 임금에 대한 충성을 일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만고창생을 구하는 길이라고 사명이 생각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임진란과 정유재란이라는 일본의 침략전쟁은 한국에 깊은 상처를 주었으며, 그 이후 400여 년 동안 이 역사적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야망을 버리지 않고 1905년 한일 합방으로 이러한 침략전쟁이 또 다시 되풀이되니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교류는 어쩌면 숙명적으로 애증이 뒤섞이는 적대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조선 에키(임진왜란)는 전쟁을 일으킨 히데요시와 그의 자손에게 화를 끼쳤음은 물론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화를 남겼다. 일본이 조선을 병합해 통치하는 데서 가장 곤란한 것 중 하나는 조선 에키의 기억이다. 무릇 모든 조선사람은 이 전쟁을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의 모든 지방에서는 이 전쟁을 기억하기 위한 돌비석이 라든지, 현판, 분묘, 서적, 또는 구비전설 등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기념물을 하나하나 없애버리려 해도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³⁾

16세기 후반에 있었던 임진란과 정유재란 아픈 기억을 한국인 누구도 쉽게 씻을 수 없다. 한일 양국의 역사에서 이 사건은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배제하고는 각자의 역사를 전개할 수 없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양국의 숙명이다. 아마도 임진란 이후에 일시 단절되었던 양국의 교류가 일본의 요청에 의해 조선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여 다시 재개되었던 것도 이러한 숙명적 관계를 입증하는 예일 것이다.

목암 최눌(默庵最訥, 1722~1795)은 1736년 14세 중이 되고 1741년 불경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7~8년 동안 선교를 연구하여 이에 통달하였다. 다음에 인용한 시는 대략 18세기 중반에 쓰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경로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문면으로 보아 이 시는 수행하던 시절 길게 사귀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난 다음 소식이 끊어진 왜승에게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3)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조선에키(朝鮮役)』, 『근세일본국민사』 9권. (이진희·강재언 저 『한일교류사』, 김익한·김동명 역 학고재, 1998, p.135에서 재인용.)

외양으로 속마음을 헤아리지 말고
 사귄 때는 침개 인연 부디 살펴 보아라
 여택으로 공부할 때는 정답도 많았더니
 부상에서 오는 소식 진정 아득하구나
 - 『왜승에게』

論心寔以形良別
 接語須尋針芥緣
 麗澤工夫情話足
 扶桑消息正無邊
 - 『贈倭僧』

침개(針芥)의 인연이란 바늘을 던져 겨자를 맞추는 인연으로 매우 어려운 인연을 뜻한다. 화자는 그러한 인연으로 대했는데, 일본으로 돌아간 승려는 아무 소식이 없어 그 신의 없음을 탓하고 있다. 설마하고 깊이 사귀었지만, 지나치게 그를 깊이 사귀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이다. 임진란을 겪기 이전인 14세기에 쓰인 천봉의 『일본 중 분케를 보내며』와 16세기 임진란을 겪고 난 다음 18세기에 쓰인 목암의 『왜승에게』에서 엿볼 수 있는 시각의 차이는 작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여택(麗澤)은 주역 태괘에 나오는 말로서 두 개의 못이 서로 가까이 있어서 두 못이 서로 윤택하게 하는 것이니 전하여 벗이 서로 도와서 학문과 덕을 쌓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⁴⁾ 이 시는 서로 학문과 덕을 쌓으면서 수행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아무 소식 없는 친구를 그리는 지은이의 간곡한 뜻을 담고 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한국과 일본의 교류는 전면적이고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도 한번의 역사적 전환점이 다가온 것이다. 특히 16세기 후반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획책했던 대륙 진출을 위한 한반도 합병이 실현된 것도 20세기 초반이다. 이러한 역사적 격동기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 한용운이다. 그는 선승이자 독립운동가이며 시인이기도 했다. 한용운(1879~1945)은 유년시절 향리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동학 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던

4) 김경탁 역 『주역』 명문당, 1984, pp.374~375 참조.

1905년 백담사에서 불교에 입문하여 수행하고 1908년에는 신문물을 시찰하고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가 유람하면서 조동종(曹洞宗)계열의 고마자와(駒澤)대학(옛 이름 조동종 대학)에서 불교와 서양철학을 청강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그가 겪은 소회를 담은 한시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의 불교 교류사에서 그 나름의 중요성을 갖는다. 이 시기의 한용운은 일본의 근대 문물을 배워서 조선을 근대화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일본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1904년에 탈고한 『조선 불교유신론』은 조선불교를 개혁하자는 뜻에서 승려취처론을 내세운 것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⁵⁾ 처음 한용운은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인간의 근본적 품성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08년 고마자와 대학 아사다(淺田)교수와 화답한 다음 시에서 우리는 그러한 시적 표현을 볼 수 있다.

참 성품은 그대와 나 아무 차이 없건만
 참선도 못해내는 가소롭다 내 삶이여
 도리어 하도 많은 갈등 속에 해매나니
 언제나 푸른 이내 산중으로 들어가리
 - 『아사다 교수에게 화답하다』 <아사다 교수가 참선시를 주었으므로 대답하다>

天真與我問無髮
 自笑吾生不耐探
 反入許多葛藤裡
 春山何日到晴嵐
 - 『和淺田教授』

참 성품이라는 점에서 인간은 누구나 동일하다. 참선 수행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다. 위의 시에서 화자는 참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세속의 일에 시달리고 있어 빨리 푸른 산 속으로 돌아가 참선을 통해 득도의 경지에 가

5) 한용운 『조선불교유신론』 『한용운전집 2』 친구문화사, 1973, pp.382~388 참조.

기를 소망한다. 이 시를 통해 볼 때, 아사다 교수와 한용운은 격의 없는 교분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낯선 일본에 도달하여 번다한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의 심경을 솔직히 표현한 것이 이 시라고 하겠다.

이와 유사한 심경은 다음 시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섬나라에는 바람 비 많아
 높은 집이라 오월이 차다
 생각이 있는 만 리 밖의 나그네
 아무 말 없이 푸른 산 마주한다
 - 「비 오는 날 홀로 읊음」

海國多風雨
 高堂五月寒
 有心萬里客
 無語對青巒
 - 「雨中獨吟」

한국과 일본은 기후와 풍토가 다르다. 오월이 되어도 한국과 다른 쌀랑한 한기가 느껴지는 것이 일본의 기후다. 이런 자연 환경의 차이는 물론 바야흐로 일본의 영원한 속국이 되려는 찰나에 있는 조국의 현실로 인해 한용운이 만 리 밖 일본에서 체험한 객고는 더욱 깊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한용운이 푸른 산을 대하고 참선에 든다는 것은 선승으로서 그의 참 모습을 부각시켜 준다. 다음 시에서도 한용운의 이런 참선 생활은 여일하게 표현된다.

1
 온 절이 고요하기 태고 같아서
 이 세상과는 인연이 멀다
 종소리 그친 뒤에 나무들 조용하고
 차 향기 속에 햇빛이 한가하다
 선의 마음은 마치 백옥 같은데
 신기한 꿈은 이 청산에 이르렀다

다시 별다른 곳 찾아갔다
우연히 새로운 시 얻어서 돌아왔다

2

절 안에는 아름다운 나무가 많아
낮이 음산하고 푸른 물결 떨어진다
그윽한 사람 막 잠이 깰는데
꽃은 떨어지고 경쇠소리가 높다
- 『조동종 대학교 별원에서 읊은 두 수』

其一

一堂似太古
與世不相干
幽樹鐘聲後
閑光茶藹間
禪心如白玉
奇夢到青山
更尋別處去
偶得新詩還

其二

院裡多佳木
晝陰滴翠濤
幽人初破睡
花落磬聲高

- 『曹洞宗大學校別院二首』

이 시의 첫 부분에서 화자는 태고같이 고요한 절에 앉아 환한 햇빛을 받으며 차를 마신다. 세상의 인연은 멀리 있다. 나무들도 고요히 서 있다. 이 정적과 더불어 화자는 깊은 선정에 든다. 그는 선정에 든 이 순간을 “선의 마음은 백옥 같다”고 표현한다. 태고의 고요 속에서 아주 깊은 명상에 도달한 그는 그가 항상 그리던 청산에 이르렀다가 다시 별세계를 찾아갔다 한 편의 시를 얻어 돌

아온다. 선심과 시심이 소통하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며, 한용운이 시승이자 선승인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후반부는 조동종 별원의 자연 풍경 그대로의 묘사이다. 대낮이 음산할 정도로 그늘지고 푸른 물결이 떨어지는 것같이 고목이 많은 별원에서 선정에 들었던 화자는 잠시 잠들었다 깨어난다.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경쇠 소리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태고의 정적 속에서 구도의 길을 가고 싶은 것이 한용운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용운의 일본 체류는 6개월을 넘지 못했다.⁶⁾

1908년 10월에 귀국한 한용운은 1911년 한일 불교동맹조약의 체결을 분쇄하고 수행을 거듭하여 1918년 드디어 득도의 순간을 체험한다. 이후 한용운의 생애는 항일과 독립구국의 길로 나아갔는데 1919년 3.1운동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고 1944년 열반에 들기까지 그 누구보다 올곧은 정신으로 독립쟁취를 위해 싸우는 혁명가가 되었다. 특히 3.1운동으로 인한 옥중 체험 이후 한용운이 1926년에 간행한 『님의 침묵』은 식민지시대 한국의 대표적인 시집으로 문학사에 우뚝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극적인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한용운의 이러한 선택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 된 서산대사나 사명유정의 선택과 같은 것으로서 인간의 참 성품이라는 점에서 일본인에게 공감하던 그들도 일단 일인들의 야심과 탐욕을 확인하였을 경우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는 강한 비타협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는 말

대체로 4세기경부터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교류의 역사는 16세기 후반 임진란을 겪고 난 다음에도 서로를 배제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충돌의 역사였다. 17세기 이후 일시적인 소강 국면을 맞이하기도 했으나 양국의 관계는 결코 단절될 수 없었으며 20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는 끝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것이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얻은 파란만장한 역사적 경험이다. 고대에는 문화

6) 최동호 『사랑과 혁명의 아우라 한용운』, 건국대 출판부, 2001, pp.28~29 참조.

적 선진국으로서 일본에 한자와 문화를 전파한 바 있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인의 역사적 경험 속에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적 또는 민족적 체험의 단위를 넘어서 개인적으로 한국인과 일본인들 사이에는 깊은 인간적 만남과 진정한 우의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 속에서 자국의 번영을 추구할 각자의 권리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상호 교린이나 화해가 아니라 어느 일방에 의한 침략과 지배의 야망이 내포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양국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선승들의 시적 교류를 몇 편의 시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매우 단편적인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 꺾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여기서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는 보편적이고 일반론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의하여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선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일차적 관건이다. 신의가 깊어지면 진정한 만남과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예가 16세기 이전의 태고 보우나 천봉 만우 그리고 20세기 한용운의 시에 드러나는 인간적 만남과 교류이다. 그들은 자신이 만난 일본 선승에게 깊은 인간적 이해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서로의 신의가 무너지면 어떤 교류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진란을 경험한 사명 유정과 목암 최눌의 시가 그 예이다. 신뢰를 깨뜨리고 지배 정복의 야욕을 드러내면 일인은 요사한 뱀이거나 사람 얼굴에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

아마도 이러한 이야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결론일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게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를 잊자는 말이 아니다. 과거를 토대로 상호 공존공영의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과거를 거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를 왜곡하는 일에 더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

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를 과거사의 정당화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충동은 그들이 처한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본이 이러한 충동에 휩쓸릴 때 동북아시아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한 쪽 역사의 전진이 다른 일방에게 피해와 고통을 줄 때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20세기 초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하고 그로 인해 사형이 집행되기 전 일본인 옥중 간수에게 “동양에 평화가 찾아오고 한일 사이의 우호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다시 태어나 또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일 양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안중근의 이 말을 우리는 깊이 음미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3.1운동으로 옥중 생활을 한 한용운은 일인 검사의 취조에 대한 답변으로 준비한 『조선 독립의 서』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고 평화를 잃은 자는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다. 압박을 당하는 사람의 주위는 무덤으로 바뀌는 것이며 쟁탈을 일삼는 자의 주위는 지옥으로 바뀌는 것이니, 세상의 가장 이상적인 행복의 바탕은 자유와 평화에 있는 것이다.⁷⁾

오늘날의 시점에서 안중근이나 한용운이 강조한 자유와 평화의 중요성은 결코 유효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질서가 개편되려고 하는 이즈음 한용운이 말한 자유와 평화는 더욱 더 음미되고 돌이켜 보아야 할 점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야흐로 새로운 역사가 태동하고 있다. 그 결과는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힘들만큼 역동적이다. 분명한 것은 과거를 망각하거나 과거를 조작하는 자는 사실을 왜곡하는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왜곡하는 자이며 그러한 왜곡과 조작을 통해서 결코 역사의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할 것이다.

7) 한용운 『조선독립의 서』 『한용운전집 1』 진구문화사, 1973, p.345

韓国と日本の禅僧の詩的交流*

—韓国禅僧たちの禅詩を中心に—

崔東鎬

1. はじめに

韓国と日本の交流は古代から今日に至るまで、両国の歴史の展開において最も密接で決定的な要素のうちの一つであった。今後ともこうした関係は互いに避けえない宿命のように持続されるであろう。概して4世紀から頻繁に行われたと思われる両国の交流は、7世紀後半から文献上に現われはじめる¹⁾。疑問に包まれたそれ以前の時代を考慮しないとしても、海を隔てて近接する韓国と日本の関係は、1500年余りの間、互いの歴史から除くことのできない絶対的關係を有してき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

韓国と日本の交流史が根が深く決定的である分、これに関する研究も多角的に行わねばならない。本稿は韓国と日本の交流において、ごく一部に当たる韓国の禅僧たちが残した十数編の禅詩を通して、彼らの人間的・文学的交流について検討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それも金達鎮編訳『韓国禅詩』(悦話堂、1985)と『韓国現代禅詩』(悦話堂、1987)²⁾に収録されたもののみを対象として限定して

* 本論文の日本語翻訳は徐潤順先生と金津日出美先生が担当してくださった。この紙面を借りて感謝の意を表したい。

1) 古代韓日交流については延敏洙『古代韓日交流史』(ヘアン、2003)を、仏教の交流については崔在錫『古代韓日仏教関係史』(一志社、1998)を参照のこと。

2) 金達鎮の『韓国禅詩』は7世紀の円光法師から19世紀初の意恂に至るまで38禅僧の800余編の禅詩を、『韓国現代禅詩』は19世紀末の鏡虚惺牛から20世紀後半の鏡峰円光に至るまで9禅僧400余便の禅詩を収録した、この方面での代表的な著書である。本稿で引用した詩の訳文と原文はすべてこの書に依拠している。

いることもあり、現時点においてこれ以上の議論は筆者の力量を越えていると判断している。無論、この分野だけでもこの間の歴史的過程から見て交流の幅は非常に広がったと推測されるが、それは韓国と日本両者に対する、より緻密な資料蓄積が要求されるため、後考を期したいと考えている。

したがって、本稿ではこの二冊の書物にみられる太古普愚(1301~1382)、千峰卍雨(1357~?)、静観一禅(1533~1602)、四溟惟政(1344~1610)、黙庵最訥(1722~1795)、韓龍雲(1879~1944)など、6人の禅僧たちの9編の詩に現われる韓国と日本の禅僧たちの人間的交流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になる。時期的に見ると、14世紀後半から20世紀初めに至る600年余りの長きにわたっており、おそらくその間の仏教の思想的交流や僧侶たちの人間的交遊はより広く深かったと推測される。しかし、本稿で検討する禅僧たちの詩的表現からも全体を貫くある展望を持つことができるという点で、このような検討は示唆するところが少なくないだろう。とくに本稿が対象としている禅僧たちは当時の韓国の知性を代表する人物として、彼らの詩は彼らが生きていた時代を読む重要な資料となりうる点から、その価値があるといえるだろう。

2. 禅詩を通してみた実例

太古普愚は高麗末期の僧侶であり、13歳になった1314年に僧侶になり、1337年参禅中に大きな悟りを開いて1346年中国へ行き、湖州霞霧山の石屋清珙の法を継承して中国臨濟宗の初祖となった人物である。「江南へ旅立つ日本の雄禅人を送る」(送日本雄禅人遊江南)は、おそらく太古普愚が中国に滞在している時に出会った日本の禅僧と別れる時にその感懐を記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

日本松風爽	新羅月色多
若遇南方三伏節	為人和唱武陵詞
—「送日本雄禅人遊江南」	

蒸し暑い南方に行く雄禅人との別れを惜んでいる詩の文面から見て二人は

非常に深い人間的交流を持っていたことが分かる。日本と韓国の美しい景色を思い浮かべながら、南方の蒸し暑さに打ち勝てと太古普愚は願っている。こうした率直な願いからは、二人はもちろん日本と韓国の関係がこの当時だけでも非常に友好的だったことが理解される。地理的に南方にある日本を指しているともいえる。故国に帰るにあたっていかなる困難が迫ろうとも、これに打ち勝てという激励の意が込められているといえるだろう。最後の句で「武陵詞」を唱和せよと勧めているのは、暑さのためにたとえどんな困難なことが起っても、人間が行く所、それがいかなる所であっても、そのすべてが武陵桃源ではないのかという意味を込めており、修道僧たちの悟りの境地を同時に表現しているからである。これは、太古普愚が日本の雄禅人との別離に対する名残惜しさを遺憾なくさらけ出している点で非常に興味深い。

千峰卮雨は内外の経典を研究し、儒家にも造詣が深い高麗の僧侶であり、90歳を過ぎた後も容貌が明るく気質が剛健であったが、彼の没年は定かではない。彼の詩「日本の僧文溪を送る」(送日本僧文溪)から読み取れるのは、日本の僧文溪を「無位人」とし、千峰が非常に高く評価し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おそらく両者は互いをそれだけ高く評価していた可能性が大きい。

相国古精舎	洒然無位人
火馳応自息	柴立更誰親
楓岳雲生屐	盆城月満関
風帆海天濶	梅柳故郷春

—「送日本僧文溪」

日本の京都にある「相國寺」が初句に登場するのはもちろん、第3～4句でも「火のような煩惱を自ら鎮め/古木のように立っているのに誰と親しむのか」と詠み、文溪の道徳を惜しみなく称えている。続く第5～6句では楓岳と盆城が登場しているのを見ると、ともに金鋼山と金海地域を旅行し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推測されるが、第7～8句は船に乗って故郷に帰る文溪の姿を描くことで終わらせている。

この詩の前半4句は文溪についての叙述であり、後半4句は韓国でともに交遊

した思い出と別離を表現している。おそらく韓国の禅僧が日本の僧侶をこれほど高く評価している例は容易に見いだす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これは、つまり、それだけ彼らの人間的交遊が深かった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

静観一禅(1533~1608)は西山の心法を継承した朝鮮の禅僧である。「日本に行く政大將を見送る」(送政大將往日本)は壬辰倭乱(文禄の役)の際、日本への講和交渉役として旅立つ泗溟惟政を見送りながら詠んだ詩である。前後の年代を見ると、およそ彼が60歳の時に詠んだ詩だと思われるが、日本へ行く途上での困難をうまく克服してなんとか無事に戻り、再會の喜びを分かち合おうというのがその内容である。

独在幽岩老病隨	古人遥憶杳難期
愁生夜壑猿啼處	断腸雲山日暮時
繁夢路修帰極易	孤帆海濶去応遅
慇懃為報相思意	須早回来來望解頤

—「送政大將往日本」

詩の内容から見て、おそらく日本に講和交渉役として派遣されるということが非常に難しい任務になるだろうと予想し、その任務を無事に終えて戻ってこいという願いの意味をこの詩に込めていると判断できる。前述の千峰の詩「日本の僧文溪を送る」と対照される一面を表現していることに注目できる。この詩は、16世紀後半の壬辰倭乱を経験して日本に対する韓国人の視角が大きく変わっていることが見いだせる重要な例になるだろう。日本人は友として友誼を交わす対象ではなく、侵略者として日本と日本人が描か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歴史の展開過程を見れば、これは非常に大きな歴史的転換の契機となったといえる。

壬辰倭乱当時、僧兵を指揮した泗溟惟政(1544~1610)に至ると、より戦闘的で直接的な内容が詩に表現されている。

十月湘南渡義兵	角声旗影動江城
匣中寶劔中宵吼	願斬妖邪報聖明

—「壬辰十月領義僧渡祥原」

豊臣秀吉の命令によって1592年4月に始まった壬辰倭乱は、その後、1597年の丁酉再乱（慶長の役）へと続き、日本軍の2次出兵により朝鮮全土が戦乱に包まれ、1598年8月の豊臣秀吉の死とともに幕を閉じた日本の侵略戦争である。壬辰年10月は李舜臣が指揮を取る朝鮮水軍と、各地で起きた義兵、そして西山そして泗溟が率いる僧軍の抵抗によって日本軍の攻勢がくじけはじめた時である。西山に後をうけて僧軍を統率することになった泗溟は、明の李如松と協力して平壤城を取り戻し、権慄に従い嶺南宣寧に駐屯しながら多くの戦功を立てた護国僧の代表的人物である。上記の詩は日本軍と戦闘をする時に書かれたもので、男性的な気概と国に対する忠誠心が現われた豪放な詩である。

泗溟は1604年、王命により講和交渉役となり国書を奉じて日本に渡り徳川家康に会った。「両国民が長い間戦乱に苦しんできたが、私とその苦難を救済しにきた」と述べて和親を結び、3500人余りの同国人たちとともに帰国し、彼の救国に対する忠誠と功労は他と比べるところがなかった。

次に引用する讃詩は泗溟が講和交渉役として日本に滞在した際に書かれたもので、日本に対する批判と万苦蒼生のための泗溟の気概が以下の二編の詩に込められている。

人身牛首 開物之大聖
 人面獸心 乃謂之何性
 喇喇青青手中草
 万古為蒼生
 —「在日本有倭持/ 神農嘗百草畫画像/ 求讚書之」

この詩は神農氏があらゆる草の味を見ている画を見て「人面獸心」と表現し、日本の侵略的屬性を批判したものである。この画の神農氏は人間の体に牛の頭をしていたのだが、これを逆転させて人の顔に獣の心を持つものたちの二重性を辛辣に指摘したのである。神農氏が倭人が見せてくれた画で人の体に牛の顔をしているのは、あらゆる草々を口にし人々の求めに応じて薬草を選別しているというものであったが、これとは正反対に顔は人であるが心は獣であるとすれば、いかに大きな害悪になろうか。神農氏のように人々を慈しむ心を持ってということ

がこの詩の本意であるだろう。換言すれば、『万古蒼生を慈しむこと(万古爲蒼生)』とは侵略的屬性を捨てて人々のための心を持ちなさいという意味に解釈できる。おそらく人々のために講和交渉役として日本に行くことも厭わないことが惟政の衆生救済の方法だったのだろう。先に引用した詩には、邪悪な蛇を切り捨ててしまうという強烈な意志や、王に対する忠誠を第一義的に言おうとすることはもちろんであるが、それが万古蒼生を求める道だと考えたはずには違いない。

壬辰倭乱と丁酉再乱という日本の侵略戦争は韓国に深い傷を与え、以後400年余りの間、この歴史的傷は消えないままであっ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そしてまた、1905年の韓国併合によりこうした侵略戦争が再び連想させることになったために、韓国と日本の歴史的交流はどうかすると宿命的に愛憎が入り混じるといふ敵対的なものにならざるをえない。

朝鮮の役(壬辰倭乱)は戦争を起こした秀吉と彼の子孫に災いをもたらしたのは勿論、今日に至るまで災いを残した。日本が朝鮮を併合し統治する上で最も困難であったことの一つは朝鮮の役記憶である。およそすべての朝鮮の人はこの戦争を覚えている。したがって、朝鮮のすべての地方ではこの戦争を忘れないための碑石や、扁額、墳墓、書籍、または口碑伝説などが数え切れないほどに多い。このような記念物を一つ一つ無くしてしまおうとしても到底無理なくらい多い³⁾。

16世紀後半に起こった壬辰倭乱と丁酉再乱の辛い記憶は、韓国人なら誰もが簡単には洗い流すことができない。韓日両国の歴史においてこの事件は一つの歴史的転換点であるとしても過言ではない。それでも韓国と日本は互いを無視してその歴史的展開を進めることはできない。それは兩國の避けることのできない宿命なのである。おそらく壬辰倭乱以後に一時断絶していた両国の交流が日本の要請により朝鮮通信使を日本に派遣して再開されたことも、こうした宿命的関係を証明する例であるといえるだろう。

黙庵最訥(1722~1795)は1736年、14歳で僧になり、1741年頃に仏典を学びはじめ、以後7~8年の間禅教を研究しこれに深く通じた。次に引用する詩はおお

3) 徳富蘇峰『朝鮮役』『近世日本国民史』9巻(李進熙・姜在彦著『韓日交流史』、金翼漢・金東明訳、学古齋、1998、p.135から再引用。)

むね18世紀中頃に書かれたものであると推測されるが、どのような背景を有している把握することは容易なことではない⁴⁾。文面を見ると、この詩は修行していた時に深く交流があり、日本に帰国後消息の途絶えた日本人僧への名残惜しさを表現している。

論心冥以形貞別	接語須尋針芥縁
麗沢工夫情話足	扶桑消息正無辺
—「贈倭僧」	

針芥の縁というのは針を投げて芥子に当てるということで、とても結ぶことの難しい縁を意味する。話者はそのような縁と思っていたが、日本に帰国した僧侶は何の音沙汰もなく、その信義のなさを咎めている。まさかと思いながら深く付き合ったが、度を超して深く彼と交わったことを物語るのがこの詩である。壬辰倭乱・丁酉再乱を経験する前の14世紀に書かれた千峰の「日本の僧文溪を送る」と、16世紀に壬辰倭乱・丁酉再乱を経験した後の18世紀に書かれた黙庵の「倭僧に贈る」にうかがえる視角の差は小さいが、見逃すことのできない部分だといえる。「麗沢」は周易の兌卦に出てくる言葉の中で、二つの釘が互いに近くにあるため互いに輝かせているというように、つまり友が互いに助け合って学問や徳を積むことを警える言葉である。この詩は互いに学問や徳を積みながら修行した時を思い出し、まったく消息のない友人を想う黙庵の丁寧な気持ちを込めている。

20世紀に入り、韓国と日本の交流は全面的かつ本格的に展開された。もう一つの歴史的転換点が迫ってきていた。とくに16世紀後半の壬辰倭乱の際にも日本が企てていた大陸進出のための朝鮮半島併合が実現したのも20世紀初期である。このような歴史的激動期の韓国仏教を代表する禅僧が韓龍雲である。かれは禅僧でもあり、独立運動家でもあり、また詩人でもあった。韓龍雲(1879—1944)は幼年期に郷里で儒学を学び、東学党革命に参加してから、乙巳保護條約(第二次日韓協約)が締結された1905年に百潭寺で仏教に入門し、修行した。1908年には新しい文物を視察し、仏教を学ぶために日本に渡り遊覧し、曹洞宗

4) 金敬琢訳『周易』明文堂、1984、pp.374～375 参照。

系列の駒沢大学(当時の名称は曹洞宗大学)で仏教と西洋哲学などを聴講したりした。この時期に彼が経験した所感を表現した詩が伝えられているが、これは韓国と日本の仏教交流史において一定の重要性を持つ。この時期の韓龍雲は日本の新文物を学び、朝鮮を近代化しようという立場を取っており、日本に対して比較的友好的な視角を持っていたと思われる。とくに1904年に脱稿した『朝鮮仏教維新論』は朝鮮仏教を改革しようという意図から僧侶妻帯論を主張したのが一つの例となるだろう⁵⁾。当初、韓龍雲は韓国人であれ日本人であれ人間の根本的な品性においては異なるところはないという見解を持っていたと判断される。1908年、駒沢大学の浅田教授と意見を交わした後に書かれた詩から、そのような詩的表現を見ることができる。

天真与我問無髮	自笑吾生不耐探
反入許多葛藤裡	春山何日到晴嵐

—「和浅田教授」

真の人となりという点で、人間は誰もが同一である。参禅修行を通じて、人間は誰もが仏のいうところの自己の本性を悟ることができる。上の詩で韓龍雲は参禅がまともにできない自己を反省している。この詩の話者は世俗のことに苦しまされているため、早く青い山の奥に帰り、参禅を通じて得度の境地に達することを願っている。この詩からみれば、浅田教授と韓龍雲は親密な交流をしていたであろうと推測できる。不慣れな日本に着いて煩わしいことの多い世情での生活に苦しんでいる自己の心境を率直に表現したのがこの詩だといえる。

これとよく似た心境は次の詩でも同じように現われる。

海国多風雨	高堂五月寒
有心万里客	無語对青巒

—「雨中独唸」

韓国と日本は気候や風土が異なる。五月でも韓国と違ってひんやりした寒気

5) 韓龍雲『朝鮮仏教維新論』、『韓龍雲全集2』新丘文化社、1973、pp.382~388 参照。

が感じられるのが日本である。もちろんこのような自然環境の差はまさに日本の属国となった直後の祖国の現実もあいまって、韓龍雲が万里の他郷である日本で体験した苦労は非常に深かったはずである。そのような状況の中でも韓龍雲が青い山に向かい、参禅に入るといことは、禅僧としての彼の真の姿を見せてくれる。次の詩でも韓龍雲のこのような座禅生活は同様に表現されている。

1

一堂似太古	与世不相干
幽樹鐘声後	閑光茶藹間
禅心如白玉	奇夢到沿青山
更尋別処去	偶得新詩還

2

院裡多佳木	晝陰滴翠涛
幽人初破睡	花落磬声高

—「曹洞宗大学校別院二首」

この詩の初めの部分では韓龍雲は太古のように静かな寺に座り、明るい太陽の光を受けてお茶を飲む。世の中の因縁は遠くにある。木々も静かに立っている。この静寂とともに韓龍雲は深い禅定に入る。彼は禅定に入るこの瞬間を「禅の心は白玉のようだ」と表現している。太古の静寂の中でとても深い冥想に到達した彼は、彼が常に描いていた青山に至り、また別の世界を訪れ、一篇の詩を得て帰ってくる。禅の心と詩情の通じる瞬間をこのように表現しており、韓龍雲が詩僧であると同時に禅僧である理由がここにある。

後半部は曹洞宗別院の自然の風景をそのまま描写している。日中でも冷え冷えと陰鬱なくらいに陰になり、青い波が落ちるように枯木の多い別院で禅定に入った韓龍雲はしばらくうつらうつらする。花びらが落ちる音のせい、それとも小さな鐘の音のせいかわからない。このような太古の静寂の中で求道の道に進みたいということが韓龍雲が究極的に追い求める道だったのだろう。しかし、韓龍雲の日本滞留は6ヶ月を越え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⁶⁾。

1908年10月に帰国した韓龍雲は、1911年の韓日仏教同盟條約の締結を粉碎し、修行を繰り返して1918年ついに得度の瞬間を体験する。以後、韓龍雲は抗日と独立救国の道に進んだが、1919年に3.1運動の先導的役目を果たしたのはもちろん、1944年に亡くなるまでその誰より正しい精神で独立を勝ち取るために戦う革命家になった。とくに、3.1独立運動による獄中体験以後の1926年に韓龍雲が刊行した『あなたの沈黙(님의 침묵)』は日帝強占期の韓国の代表的な詩集として文学史において高く評価されている。

劇的な大転換と言える韓龍雲のこのような選択は、壬辰倭乱・丁酉再乱で義兵の長になった西山大師や泗溟惟政と同じもので、人間の真の人となりという点で日本人に共感した彼らも、一度日本人の野心と貪欲さを確認した時、決してこれを受け入れない強い非妥協の精神を持っていたことがうかがえる。

3. 過去と現在を眺望して

概して4世紀頃から始まった韓国と日本の交流の歴史は、16世紀後半の壬辰倭乱を経た後にも互いを排除できない大小様々な衝突の歴史であった。17世紀以後に一時的に小康状態を迎えたが、両国の関係は決して断つことはできず、20世紀初頭にいたり、ついに日本の植民地へと転落したことが韓国が日本との関係から受けた波乱万丈の歴史的経験である。古代には文化的先進国として日本に漢字と文化を伝えたという自負心を有している韓国人の歴史的経験の中には、肯定的なものよりは否定的な陰が濃く残っていることもまた否定することのできない事実である。国家的または民族的体験の単位を越えて、韓国人と日本人との間に個人的な深い人間的な出会いと真正な友情はあり得る。それは過去にもそうであったし、今後もそうであろう。

韓国と日本は東北アジアの情勢変化の中で、それぞれ自国の繁栄を追求する権利がある。しかし、相互交隣や和解ではなく、どちらか一方による侵略と支配の野望が内包されるのであれば、それはいかなるものも両国のために望ましいこ

6) 崔東鎬、『愛と革命のオーラ韓竜雲』建国大出版部、2001、pp.28~29 参照。

とではない。

本稿では、簡単に韓国と日本の禅僧たちの詩的交流を十数編の詩を通して明らかにしてきた。それらは非常に断片的な考察であるといわざるを得ない。しかし、それは一つの象徴的な指標として理解することができ、これを要約すれば次の二つに整理できる。

一つは、人間の本性という点で両者は同一であるということだ。これは普遍的で、一般論的な視角である。しかし、このような仮定は具体的な歴史的状況によって、容易く崩れる場合が多い。したがって、何よりも韓国と日本の関係は互いの信頼が第一の要である。信頼が厚くなれば本当の意味での出会いと交流が可能だということだ。その例が16世紀以前の太古普愚や千峰卍雨の詩から、そして20世紀の韓龍雲の詩にみられる人間的な出会いと交遊である。彼らは、自らが出会った日本の禅僧に深い人間的理解と信頼を持っていた。もう一つは、互いの信頼が崩れればどんな交流も不可能だということだ。壬辰倭乱を経験した泗溟惟政と黙庵最訥の詩がその例である。信頼を裏切り支配征服の野望を表に出せば、日本人は邪悪な蛇や人面獣心になってしまう。

おそらく、このような話は誰もがわかる常識的な結論かもしれない。最後に述べたいのは、韓国と日本の両国は過去のみがあるのではなく、現在は勿論、未来がより重要だということだ。これは過去を忘れようということではない。過去を土台にして相互共存・共栄の未来を開拓して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味である。

最近日本では、過去を鏡にするのではなく、むしろ過去を歪曲する事により力を入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心を引き起こすようなことが起っているという印象を受ける。日本の立場からは過去の歴史の正当化といえるかもしれない。このような衝動は彼らの危機感の反映ではあるが、日本がこのような衝動に揺さぶられる時は東北アジアは決して平和ではありえ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歴史の教訓である。片方の歴史の前進が他の片方に被害と苦痛を与える時、それは望ましいことだとはいえない。20世紀初め、安重根は伊藤博文を狙撃し、それによって死刑が執行される前、監獄の日本人看守に「東洋に平和が再び訪れ、韓日間の友好がもう一度回復した時、生まれ変わってまた会いたいです」といったという。韓日両国の未来を思う時、安重根のこの言葉を私たちは深く吟味しな

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

3.1運動で獄中生活をした韓龍雲は、日本人検事の取り調べに対する答えとして準備した『朝鮮独立理由書』の書き出しに次のように書いた。

自由は万物の生命であり、平和は人生の幸せである。だから自由のない人は死んだ死骸のようで、平和を失った者は最大の苦痛を経験する人だ。圧迫される人の周りは墓に変わり、争奪をする者の周りは地獄に変わるのだから、世の中の一番理想的な幸せの土台は自由と平和にあるのだ。

今日においても、安重根や韓龍雲が強調した自由と平和の大切さは、決して有効性を失っていない。いやむしろ東北アジアに新しい秩序が改編されようとする近頃、より一層その意味を考えて振り返ってみなければならぬといわざるを得ない。今こそ新しい歴史が胎動している。その結果は誰も簡単には予測しがたいくらいに躍動的である。明らかなことは、過去を忘却したり過去を操作する者は、事実を歪曲すると同時に人間の本性を歪曲する者であり、そういう歪曲と操作を通じては決して歴史の勝者になれないということが歴史の教訓だと言えるだろう。